

# 담양군 '오락가락 행정' 민간업체만 피해

## 郡, 20년전 용도변경 지역 "자료 없다" 시설 불허 석재업체, 수십억 투자 파쇄기 3개월째 설치 못해

담양군의 일관성없는 행정 처리로 인해 수십억 원을 투자한 민간사업자가 3개월이 넘도록 사업착수조차 하지 못해 물의를 빚고 있다.

담양군은 최근 무정면 D석재가 신청한 석재 파쇄기 설치 허가 신고(공작물 설치 신고)에 대해 허가 신고지역이 관련법상 공작물이 들어설 수 없는 농림지역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담양군이 농림지역이라고 밝힌 곳은 이미 지난 1988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농림지역에서 공작물 등의 설치가 가능한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완료된 곳여서 문제가 되고 있다.

레미콘 업체인 D석재는 을 조해당 지역이 이미

20년 전에 담양군에 의해 관리지역으로 변경됐음을 알려주는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등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임을 명시한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50억원을 들여 석재 파쇄기를 구입하는 등 사업 준비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 4월 모든 시설물과 서류를 갖춰 담양군에 석재 파쇄기 설치 허가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정작 담양군은 허가 신고 대상 지역이 석재 파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 조치했다.

담양군은 20년 전에 자신들이 발급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서'에 문제의 지역이 석재 파쇄

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용도변경 절차와 관련한 첨부 서류가 부족하고, 토지대장에 변경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등 용도변경이 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확증이 부족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D석재는 20년 전 담양군수가 서명한 사업계획 승인서에 이미 석재 파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용도변경됐음이 명시돼 있어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고, 관련 서류가 지금까지 군에 보관돼 있지 않은 점 등은 명백히 군의 부실한 행정일 뿐 민원인 사업 신청 결격 사유와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석재파쇄기 설치 가능 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는 사실이 관련 서류에 나와 있지만 정작 용도변경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법적처 등에 질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영암 월출산 자락에 위치한 기찬랜드를 찾은 피서객들이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 월출산 '기찬랜드' 웰빙피서 인파

### 자연형 풀장·맥반석 물 인기... 피서객 몰려 이용료 저렴...개장 16일만에 2만명 다녀가

지난 12일 개장한 영암 월출산 '기찬랜드'가 연일 물놀이 피서객들이 몰려들며 대박을 터트리고 있다.

영암군은 27일 현재 1일 평균 평일 500~800명, 휴일엔 2천 명이상이 방문해 개장 16일 만에 2만 명 이상의 피서객이 다녀 간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월출산 자락 응치골에 자리 잡은 기찬랜드는 6만7천㎡의 부지에 국·도비 62억 원 등 모두 110억 원

이 투입됐으며 1만 8천㎡를 담수할 수 있는 대형 사방댐과 사성교(四星橋), 팔각정, 구름다리, 정자 등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

특히 기찬랜드내에 조성된 5개의 자연형 풀장은 울 여름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가장 상류에 조성된 '바둑 명인' 조훈현씨의 호를 딴 국수 풀장(길이 90m, 폭 15m)은 최대 수심이 1.5m로, 성인들의 물놀이터로 각광 받고 있다.

또 국수 풀장 바로 아래 자리 잡은 1호 풀장(길이 20m, 폭 15m)은 맥반석 물이 직접 쏟아져 나오는 용머리 시설과 70cm에 불과한 얕은 수심으로 어린이 고학년들로부터 산공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용료 역시 저렴한 영암군은 승용차 1대당 2천500원, 외지인은 5천원의 주차료만 내면 모든 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취사는 금지돼 있다.

김일태 영암군수는 "기(氣)의 고장인 영암의 특성을 살려 월출산 자락에 물놀이 시설을 조성했다"면서 "영암을 방문하는 피서객 모두를 최고의 귀빈으로 모시겠다"고 말했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 '곡성 효멜론' 日 이어 러·대만에 40만弗 수출

곡성농협은 '곡성효(孝)멜론'이 일본에 이어 대만과 러시아에도 수출된다.

곡성농협은 28일 NH농협무역을 통해 미화 40만 달러 규모인 200t의 멜론을 대만과 러시아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원호 농협 곡성군지부장(오른쪽)과 배기섭 조합장이 곡성효멜론 공동 선별장에서 대만과 러시아 수출길에 오를 멜론을 들어 보이고 있다.

'곡성효멜론'은 일교차가 크고 토양이 비옥해 향이 독특하고 품질이 균일한 데다, 비파과 당도 측정 후 당도를 표시해 출하하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소비자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판로가 확대되면서 곡성멜론의 연간 매출액도 50억원을 넘고 있다.

곡성농협 배기섭 조합장은 "대만과 러시아 수출은 국내에서 쌓은 곡성멜론의 명성을 외국시장에

서도 인정받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수출물량이 늘어날 경우 판로 격정을 벌

게 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

## '광산사랑 UCC 공모'

### 9월 1~16일까지 접수

광산군이 '제 1회 광산사랑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UCC공모 주제는 광산군의 자연, 문화재, 먹을거리나 광산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영상물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6일까지이다.

출품규격은 동영상과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30초 이상 5분 이내 분량이다.

광산구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gbs.gwangsan.go.kr)에 서 응모신청서와 작품요약서를 다운로드 받아 데이터 파일과 함께 온라인이나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062-940-8449,8242)

/광산=기원태기자 wtkee@

## 농촌공 전남본부 '청렴 이행 결의대회'

한국농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장봉조)는 지난 25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청렴 생활이행 재다짐 결의대회'를 가졌다.(사진)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부패추방 및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이권개입 및 알선·정탁 금지 ▲지연·학연·혈연에 의한 차별행위 금지 ▲신속·친절·공정한 업무처리 등 실천사항을 다짐하고 청렴생활 이행 결의문을 채택했다.

장봉조 본부장은 "직원 스스로 행동강령 정신을 준수하



는 분위기를 만들어 모든 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 영광 하수처리장 '군민 쉼터'로 바뀐다

### 郡, 11월까지 사업비 5억 투입 축구장·친수 연못시설 등 조성

그동안 혐오시설로 인식돼온 영광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친환경 기초 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변모한다.

영광군은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오는 11월 준공목표로 영광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 3만7천680㎡에 축구장, 축구장, 친수 연못시설 등을

갖춘 '영광군민의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축구장이 국제규격으로 건설돼 스포츠 마케팅 사업 및 영광군내 축구 동호인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친수 연못시설은 하수종말처리 시설에서 정화한 처리수를 이용, 친환경적인 이미지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 강진 '청자문화제' 내달 9일 광파르

### '흙·불 그리고 인간' 주제 참여·체험 프로그램 확대

천년의 비석을 선보일 제 13회 강진 청자문화제가 다음달 9일부터 17일까지 대구면 고려청자촌 일대에서 열린다.

7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강진청자문화제는 올해에는 '흙·불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5개 부문 100개 단위 행사가 열리며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시행사는 ▲청자 공모전 입상 작품 전시 ▲청자박물관 소장 미공개 유물 특별전 운영 ▲국내외 도예작가 워크숍 ▲고려청자 학술세미나 ▲강진청자문화제 전국사진 공모전 ▲어린이 청자박물관 운영 ▲전국 대학생 물레성형 경진대회 등이 열린다. /박진표기자 lucky@

## 화순 약초 재배농 '한약초 농업인연합회' 결성

화순의 약초 재배농가들이 '한약초 농업인연합회'를 결성했다.

화순지역 150여 약초 재배농가는 약초재배 농업인의 힘을 모으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4일 군 농업

기술센터에서 '한약초 농업인연합회'(회장 최동림·59)를 결성했다.

회원들은 연합회 창립 선언문을 통해 "친환경 과학영농으로 소비자가 인정하는 최고의 한약초를 생산, 판매

소득 30% 향상과 군민소득 10% 증대에도 기여토록 할 것"을 다짐했다.

화순군은 전국 최초 '한약초 대학' 운영을 비롯해 농촌진흥청 인삼약초 연구소와 재배기술 업무협약 체결, 인삼공사와 한약초 판매계약 체결 등을 하는 등 '약초농업의 메카'를 꿈꾸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자연 愛 !! 살고싶다

### 드림이달림의 행복!!

'담양수북'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 땅값 100만원 이하
- 100㎡ 이상, 1000㎡ 이하
- 전·월세 가능
- 1000㎡ 이상, 10000㎡ 이하
- 전·월세 가능
- 1000㎡ 이상, 10000㎡ 이하
- 전·월세 가능

문의 : (주) 코베스태아로  
 시공 : (주) 시안테크빌  
 www.covestate.com  
 ☎ 061-251-4000 / 061-383-2346

## 광주·전남 기능장 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 가발 최신제품 70만원

# 가발

## 초슬림!!

귀하의 분위기와 연령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문의 : 062-573-5200, 673-4012  
 분당 미수 재 011-107-5330